민주당 최영호 남구청장 후보가 26일 광주시 남구 봉선시장에서 유권자들과 악수하며 한 표를 부탁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황일봉 무소속 남구청장 후보는 26일 오전 광주 남구 방림동 '성요셉의 집' 사랑의 식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는 배식 봉사활동을 벌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김밥으로 점심 "1초가 아깝다"

**■민주당 최영호**

## 출·퇴근 거리유세→정책발표 등 17개일정 소화

## 노인타운 찾아 "새 인물에게 효 실천 기회달라"

##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총출동 지원 유세

26일 오전 11시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오랜만에 잿빛 하늘이 거둬지고 따사로운 햇볕이 나온 탓인지 인산인해였다.

민주당 최영호 남구청장 후보 유세 메뉴는 '새 인물과 함께 살 맛나는 경제 남구 건설' 이었다.

"진짜 효(孝)를 하려면 젊은 사람이 취업하고 경제가 살아나야 하지만 지난 8년간 남구는 경제적인 피폐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제 새 인물과 함께 살 맛나는 경제 남구 건설을 통해 진짜 효를 실천하겠습니다." '효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상대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이었다.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지만, 청중 속으로 파고드는 호소력과 청중을 집중시키는 강인함이 묻어났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최 후보를 향해 2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최영호, 최영호'를 연호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이날 대거 출동해 최 후보를 지지했다. 때맞춰 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의 유세도 함께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연단에 올랐다. 정 전 장관은 "민주당이 광주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민주당 기반이 흔들립니다. 민주당은 뼈아픈 자성과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새로운 인물을 많이 내놨습니다. 최영호 후보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남구의 새 인물, 최영호 후보를 많이 지지해주길 바랍니다."라며 최 후보를 띄웠다.

이어 강기정 의원과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가 나서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인 최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유세가 끝난 뒤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이용객들의 수도 크게 늘었다. 최 후보는 식당에 들어오는 노인들에게 " 어르신이 건강해야 남구가 건강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얼추 3000여 명에게 이 같은 인사를 했다.

점심은 이동 중인 차 안에서 수행원이 사온 김밥과 생수로 때웠다. 거의 매일 차 안에서 식사를 하지만, 잠시 짬이 날 때는 분식집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수행원이 귀띔했다.

오후 2시 남구 백운동 최 후보의 선거사무실. 남구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단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200여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최 후보가 공동주택 정책발표회를 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그동안 남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수립·집행하고 있지만, 예산 규모가 아주 미미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 조례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남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적용됐지만, 이를 12년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존 조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은 열렬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오후 5시30분 퇴근길 남구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앞.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왼손은 열정적으로 흔들면서 최 후보가 높은 톤으로 외쳤다. "한나라당 신 안보 정국을 타파하기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힘이 절실할 때이며, 이를 광주시민과 남구민이 해주셔야 합니다."

계속되는 유세로 이미 갈라져 있던 최 후보의 목소리에 다수의 청중이 머리 위로 손을 올려 손뼉을 쳤다. 이날 최 후보는 오전 6시에 기상해 밤 11시30분까지 출근·퇴근길 인사에서부터 유세, 정책발표 등 모두 17개의 일정을 소화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새벽 4시 기상 10㎞이상 강행군

**■무소속 황일봉**

## 자원 봉사자들과 복지시설 찾아 배식 봉사

## 소음방지 위해 목례·손 흔들며 길거리 유세

## 무소속 후보들도 합류 상가 돌며 지지 호소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소"

26일 오전 11시 30분. 사회복지시설인 광주 남구 방림동 성요셉의 집 사랑의 식당에서 구슬픈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노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황일봉 무소속 남구청장 후보였다.

시설 어르신들을 위해 황 후보가 '비 내리는 고모령'을 멋드러지게 뽑은 것이다. 그는 노래가 끝난 뒤 노인들 손을 일일이 잡으며 "효사랑을 실천하는 구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만 살리다 보면 노인들이 외면받을 수 있다"고 표심을 자극했다. 황 후보는 곧이어 배식활동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오후 3시. 광주 남구 백운 광장 앞에 때아닌 노란색 물결이 장관을 이뤘다.

노란 모자를 쓰고, 노란 티를 입은 '아줌마 부대'가 노란 깃발을 흔들며 '황일봉, 황일봉'을 연호했다.

곧이어 황 후보가 노란 깃발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와'하는 함성이 쏟아졌다. 아줌마 부대에 에워싸인 황 후보는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리듬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자원봉사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연일 이어지는 강행군에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열혈 지지자들의 연호에 잠시 피곤함을 잊은 모습이었다. 그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띤 채 "연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꼭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황 후보는 기자에게 "후보가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강인함을 가져야만 지지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지지자들의 동력이 당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국제호텔 앞에서부터 거리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때마침 무소속 남구의원 후보들도 하나 둘씩 모였다.

황 후보는 민주당이 남구청장 후보 경선방식에 시민공천배심원제도 도입하려하자 '남구민이 후보를 선출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폭거'라며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 뒤 남구지역 무소속 지방의원 후보들과 연대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 때문인지 황 후보를 중심으로 한 무소속 후보들의 합동 선거운동이 곧잘 눈에 띈다.

황 후보는 무소속 후보, 지지자 100여 명과 함께 국제호텔 인근 상가를 누비기 시작했다. 무소속 '세몰이'다. 이들은 상가를 한 곳도 빠짐없이 들러 무소속 후보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기 위해 식당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방까지 찾아 들어가 직원들의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는 열성도 보였다. 재선 구청장이었던 만큼 그를 알아보고 반기는 사람도 많았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남구는 기존 선거에서 무소속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선출했다"면서 "이번에도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의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날이 어둑해 질 무렵 거리 선거운동이 마무리됐다. 무려 10km 이상을 걷는 강행군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질 데로 갈라졌지만, 연호는 끊이지 않았다. 저녁 7시에는 백운 광장 앞에서 퇴근 길 유권자를 상대로 한 유세를 시작했다.

마이크를 잡은 황 후보는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반드시 검증된 후보를 선택해주십시오. 이제 자녀 취업의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목청을 높였다.

'3선'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황 후보는 이날 새벽 4시에 기상, 새벽 5시 광주 반석 교회 예배를 시작으로 총 15개의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